다산포럼

서산개척단, 그 배후에 있는 폭력을 생각하며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며칠 전에 서산에 사는 윤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할머니는 해남이 고향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3년, 그녀는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 집에 놀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서울역 부근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붙잡혔다. 수예 학원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도착한 곳은 '서산 자활개척사업장'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통제가 엄격하고 무서워 도망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26일, 125쌍의 서산개척단원 합동결혼식이 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면사포를 썼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964년 11월, 서울시장 주례로 225쌍의 합동결혼식이 워커힐에서 열렸는데,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하여 1년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 다수가 다시 동원되었다. 당시 언론들은 이 신부들이 한때 윤락 여성이었으며 "서울시립 부녀보호지도소에서 재생한 여성들이다"고 보도했다. 할머니는 그렇게 국가와 언론이 씌운 굴레와 낙인에 평생 괴로워하며 살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회악 일소나 사회 정화라는 용어는 별로 낯설지 않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980년 5·18 직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했던 삼청계획 5호였다. 이것은 사회 정화와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한 '불량배 소탕 계획'이었는데, 이는 1961년 5·16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1년 5·16 직후 군사정부는 사회악 일소를 내세워 깡패나 부랑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깡패들에 시달리던 일부 시민들은 환영했지만, 법적 근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들에게는 국토건설단이나 서산개척단과 같은 고상한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군사정부는 1961년 7월 12일 서울의 부랑아 정착 사업으로 450명을 대관령으로 보냈다. 현지 수용소 감독관은 최고회의가 지명한 장교였고, 수용소 경비 책임은 군 헌병이 맡았다. 뒤이어 11월에 서산개척단이 발족했다. 이들은 종종 '대한청소년개척단'이라고도 불렸는데, 이의 뿌리는 1961년 5월 1일, 청계천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출범한 '대한청소년기술보도회'였다. 5·16 쿠데타 이후 이들의 리더였던 김춘삼이나 민정식이 군사정부와 연이 닿으면서 군사정부의 사업이 되었고, 중앙정부도 개입했다. 바로 뒤이어 장흥개척단이 만들어졌다. 1962년 2월 서산개척단에 2진이 도착하고 폐염전을 개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100여 명의 여성들도 잡혀 왔다. 그 후 계속 인원이 증가하여 1700명에 이르렀다. 초기 간부들은 불량배 출신들이 많았지만, 이들의 중심은 피난민이나 전쟁고아, 도시 주변의 가난한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강제로 잡혀가 낯선 곳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일을 해야 했다. 이들에게는 개간이 완료되면 3000평의 농지를 분배한다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도망자들이 속출했다.

1966년 6월, 일부 젊은이들이 조회 시간에 들고 일어나 기존의 지도부를 쫓아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서산개척단의 '자유화' 또는 '해방'이라고 부른다. 이들 800여 명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시 정부가 개척단 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용을 어떻게 유용했는지를 묻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968년 7월, 정부는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개척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산에서는 토지 가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분배를 집행할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1982년 12월 법률이 폐지되면서 약속된 무상 분배도 무산됐다.

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간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하였다. 진실 규명 신청 1년 반만에, 조사 개시 1년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위원회는 감금, 폭행, 강제 노역, 강제 결혼 등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과 함께 "국가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 수용 및 강제 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 결혼 등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한 점에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이런 진실 규명이 있기까지 피해 당사자들의 끈질긴 요청과 뜻 있는 언론인, 문화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늦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고통을 모두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과를 영전에 드린다.

'6·1 선거 공감' 기고 〈8〉

말하기보다는 듣기, 선거운동의 대전환

박민영
세대혁신 이목포럼 공동대표

6·1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6%로 마감됐다. 대선과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의 관심과 투표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대선에서는 후보자를 평가하고 각각의 공약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투표하지만 정작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공약 비교는커녕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깜깜이 선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 참여의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 지방자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나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도정이나 시정에 의견에 표시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랐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었다.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예산을 감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민주 정치가 발전하는 정도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다. 상황을 반전시킬 키 역시 유권자가 쥐고 있다.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우리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일에 무관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조직표가 맹위를 떨치면서 민의가 왜곡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 방식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선거 유세이다. 기존에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많은 군중 속에서 단순히 로고송을 틀고 율동을 보여 주며, 후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발언 위주의 선거 유세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일방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후보자의 정보만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방식이었다.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었다.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는 후보자들의 이야기는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과 만나며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유 발언을 통해 시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유세차에 달려 있는 우체통에 시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적어 넣어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후보자 홍보만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다양하고 쉬워져야 한다. 그렇게 모인 목소리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를 통해 높아진 정치 참여도는 민주 사회를 발전시킬 것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선거가 되길 바란다. 〈끝〉

NGO 칼럼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응답해야 할 때

변정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옹호사업팀장

요즘 아이들에게 포켓몬빵은 매우 인기가 많다. 그 포켓몬스터 노래 가사 중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대목이 있다. 달라도 모두 친구라는 가사가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여서 참 듣기 좋다.

아동 인권 옹호 선구자인 야뉴슈 코르착이 지은 '야뉴슈 코르착의 아이들'이라는 책에는 인상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는 수백의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서로 다른 난제이고, 서로 다른 과업이며, 서로 다른 염려와 관심을 베풀어야 할 대상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100년 전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정하며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하는 선언을 하였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월드비전 전남사업본부 등 광주 지역 네 개 아동복지 NGO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에 협약을 맺었다. 기관들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여 아동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아동은 투표권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고 배제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고 특정 대상에게 귀속되어 있다.

네 개 단체들은 대한민국 아동총회 광주지역대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남지역대회 등을 통해 아동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 지방선거 아동 참여 정책 제안 설문조사와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실제 광주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소망이 담긴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공동 정책 촉구 활동도 진행하였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자에게 전달한 정책 내용은 아동 놀이문화 시설과 자연환경(숲·공원) 확대, 아동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아동 대상 폭력 및 범죄(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범죄, 디지털 범죄 등) 예방 등이다. 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 참여 활성화, 기후 환경 변화(미세먼지·재난) 문제 해결 및 환경보호 정책 마련 등도 포함돼 있다.

교육감 후보자에게 전달한 정책 내용은 지나친 학습 경쟁을 줄이고 아동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도 운영, 체험형 진로교육 대폭 확대 등이다. 학교의 놀이 시간과 놀이 공간 확대, 학교 내 폭력 예방 강화,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학교생활 보장,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정책 내용도 전달했다.

아동 정책은 '아동'이 전문가이다. 어린이 법의 본질은 어린이에게 묻고 어른들이 답을 해 줘야 하는 것이다. 주변에 달라진 환경이 보이는가? 달라진 환경이 보인다면 그것은 연대의 결과이다.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인 어른들이 목소리를 북돋워 주고 실현시켜 주기 위해 함께 손잡은 결과이다. 바로 연대와 협력이 이루는 힘인 것이다.

정치권에 건넨 아동 정책 공약서 제목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광주'를 기대한다.

社說

민주·무소속 대결 격화 네거티브 자제를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약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현직 단체장들을 포함해 열 곳 가까이에서 양측 후보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을 보여 주는 지표 중의 하나는 엊그제 진행된 사전 투표율이다. 전남은 31.04%로 전국 평균을 10%포인트 이상 웃돌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직 단체장이 맞붙은 접전지의 투표율이 높았다. 민주당 공영민 후보와 현직 군수인 무소속 송귀근 후보가 맞붙은 고흥은 49.66%로 전남은 물론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곡성군(45.88%), 장성군(45.32%), 장흥군(43.45%) 등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어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다. 45.01%를 기록한 강진의 경우 민주당이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무소속 전·현직 군수 간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소속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다섯 명이 당선됐고, 2회~6회 선거에도 여섯~여덟 명에 달했을 만큼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조직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후보 간 공동전선을 펴면서 사활을 건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막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 유포, 흠집 내기 등 네거티브 선거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후보보다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발전시킬 일꾼을 원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 검증은 필요하지만 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외면한 채 네거티브에만 매달린다면 유권자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농철 물 부족 사태 근본 대책 마련해야

광주 남구 대지동 농민들이 모내기 철에 물이 부족해 속을 태우고 있다. 농업용수를 끌어오던 남구 압촌동 맹간저수지 주변에 광주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수원이 전면 차단돼 저수량이 급감한 탓이다.

대지동 농민 60명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산단 조성을 맡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에 진정을 냈다. 맹간제에 농업용수로 쓸 만큼 충분한 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다. 맹간제는 산단 내 3만 615㎡ 규모의 저수지로, 1942년에 축조돼 대지·지석동 23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맹간제 물길은 2018년 산단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차단됐다. 광주도시공사는 법정 보호종인 가시연꽃의 서식지를 보호하라는 환경 당국의 요구에 따라 빗물과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했다. 수원이 모두 차단된 맹간제 수심은 2020년 1.59m에서 2021년 0.1m로 떨어져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농민들이 반발하자 광주도시공사는 2019년 지하수 관정 두 개를 설치했으나 관정 지름이 32㎜인데다 양수 능력도 1일 60㎥에 불과해 총 저수량 5만㎥인 맹간제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에 지름 300㎜짜리 대형 관정 세 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한다. 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수 공급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 지역은 이달 들어 내린 비가 0.4㎜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원 고갈은 단순히 물 부족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따라서 행정 당국은 맹간제 수원 유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체 수원 개발을 고려하되, 당장 영농 철을 맞은 농민들을 위해 물 공급 체계를 서둘러 확보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홍은원 감독

요즘 상영 중인 영화 '오마주'(감독 신수원)는 1960년대 활동한 홍은원(1922~1999) 감독의 존재를 드러낸다. 부끄럽게도 이번 영화를 통해 '미망인'(1955년)을 연출한 박남옥 감독에 이은 두 번째 여성 감독에 대해 비로소 알게 됐다. 영화는 독립영화 감독인 지완(이정은 분)이 홍 감독의 데뷔작 '여판사'(1962년)의 필름을 복원하기 위한 여정 속에서 1세대 선배 여성 영화인의 잊혀진 활동상과 현재 여성 영화인이 겪는 현실을 교차시켜 보여 준다. 프랑스어 오마주(hommage)는 '존경' '경의'를 의미한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영화 전문 웹사이트(KMDB)에 따르면 순천 태생인 홍 감독은 '여판사'(1962년)와 '홀어머니'(1964년) '오해가 남긴 것'(1965년) 등 세 편의 영화를 연출했다. 홍 감독은 1946년 최인규 감독의 영화 '죄없는 죄인'의 스크립터로 영화계에 첫발을 들였으며, 오랫동안 시나리오 작가와 조감독으로 활동했다. 1956년 조감독을 맡은 '백치 아다다'(감독 이강천)에서 우리 귀에 친숙한 동명의 주제곡 노랫말을 쓰기도 했다.

홍 감독은 40세 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여판사' 메가폰을 잡으며 "여자를 그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화 개봉 후 "빠른 템포의 '카팅'(커팅)과 요령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는 통속 오락 영화를 만들었다"(조선일보 1962년 11월 9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기사마다 홍 감독 이름 앞에 '현역 감독 중의 홍일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지난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5회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 주연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의 수상 쾌거는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 속 수많은 선배 영화인들이 다진 토대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일 것이다.

관객들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몰리는 반면 잘 만든 한국 영화들은 외면하기 일쑤다.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한국 영화인들의 창작 열정은 과거나 현재에도 변함없을 것이다.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K-무비'의 미래는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